

빗해파리부터 호모사피엔스까지,  
인간과 동물, 자연을 음미하는 그림 여행

# 동물 미술관

인문학자 우석영과 함께하는 동물 미술관 산책!  
낯설고 새롭게 그림 보기, 더 깊이 음미하고 사색하기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얼마나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옳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진정 바란다면,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부터 멀리 해야 한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지은이 | 우석영  
분야 | 인문/예술 일반  
분량 | 224쪽  
판형 | 175\*240mm  
정가 | 22,000원  
펴낸곳 | 궁리  
ISBN | 978-89-5820-552-4 (03600)  
문의 | 변효현 전화 : 031-955-9818  
팩스 : 031-955-9848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25-12  
www.kungree.com | kungree@kungree.com

“옳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진정 바란다면,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부터 멀리 해야 한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우리의 과제는  
자연의 소나타를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그 악보를 기록하는 것이다.”  
- 야콥 폰 워스킬

**인문학자 우석영과 함께하는 동물 미술관 산책!**  
**낮설고 새롭게 그림 보기, 더 깊이 음미하고 사색하기**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얼마나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의 〈전국 노래자랑〉 수준의 오래된 TV 프로그램인데, 이런 동물 관련 TV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보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동물에 대한 관심은 우리 자신의 뿌리에 대한 관심, 동료 생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자연(지구자연의 생태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지만 막연한 관심과 실제적 삶에는 분명 차이가 있어요. 이 책은 동물을 함께 알아가자는 제안입니다. 알아간다는 건 재미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림을 보며 알아가게 되면 더욱 재미가 있습니다.” - 저자 인터뷰 중에서

고대와 현대,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동물화 미술작품을 통해 인간과 동물, 자연의 공존 문제에 대해 사색하게 하는 이 책 『동물 미술관』은 오늘날 동물의 생존권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인간적 삶이 처참히 무너져내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쓰였다. 저자가 동물화를 주제로 잡게 된 것은 시대적 필요성과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다. “동물을 너무나 모른다는 자괴감에, 어느 날 나는 동물 알아가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그는 무엇보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성에 주목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식물이 엽록체라고 하는 공생체를 품어 가이아를 유기체 친화적 환경으로 만드는 데 주된 역할을 해왔고, 그리하여 인간에게도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로 남아 있다면, 동물은 비유컨대 인류의 중시조 같은 무엇이다. ‘동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호모사피엔스가 어떤 존재인지 말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알려는 이라면 자신의 선조를, 자기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태어난 시점까지의 역사부터 먼저 알아야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도, 호모라는 속(Genus)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왜 언제부터 항시적 직립(이족)보행이 지구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도, 인류의 조상이 왜 삼립지대를 포기하고 들판으로 나왔는지도 알아야 한다. 물론, 동물이 지구에서 탄생한 역사까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38개 동물 문(Phylum)에 속하는 여러 동물들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다르게, 얼마나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요컨대, 이 책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관심을 둔 이라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 본문 중에서

**이암, 김홍도, 신사임당, 화안, 윤빙, 우타가와 히로시게, 우스타드 만수르부터 마리아 지빌라 메리언, 반 고흐, 앙리 루소, 존 굴드, 존 제임스 오듀본, 주세페 가스틸리오네, 칸지두 포르치나리, 호안 미로에 이르기까지 고대와 현대,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130여 장의 미술작품 읽기를 통해 나와 우리, 인간과 동물, 자연의 공존을 사색하다!**

저자 우석영은 철학, 사회학 분야 연구자이자 집필가로 연세 대학교, 시드니 대학교 대학원,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대학원을 유망하며 예술사회학, 문학, 철학 분야의 내공을 쌓았다. 예술사회학, 그중에서도 저자의 전공은 미술사회학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뒤로도 미술에 대한 관심과 공부는 중단해본 일이 없다. 그는 ‘파인 아트(Fine Arts)’라 불리는 장르에 줄곧 매료되어왔는데, 이러한 사정이 이 책의 주제를 풀어나가는 데 미술작품 읽기를 사용하게 된 바탕이 되었다. 빗해파리부터 호모사피엔스까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을 음미하는 그림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얼마나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즉, 인간과 동물의 관계성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인간이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지금 나의 삶을 가능하게 하며, 어떻게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선뜻 답하기 어려운 화두에 독자들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서고 스스로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술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사를 더 잘 기억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알랭 드 보통과 존 암스트롱, 『영혼의 미술관(Art as Therapy)』

본문에는 이암, 김홍도, 신사임당, 화안, 윤빙, 우타가와 히로시게, 우스타드 만수르부터 마리아 지빌라 메리언, 반 고흐, 앙리 루소, 존 굴드, 존 제임스 오듀본, 주세페 가스틸리오네, 칸지두 포르치나리, 호안 미로에 이르기까지 고대와 현대,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130여 장의 다채로운 미술작품이 등장한다(99퍼센트의 회화와 1퍼센트의 조각 작품이다). 저자는 특히 동물의 세계를 연구하고 이를 회화로 기록했던 동물학자이자 화가 또는 일러스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별하여 신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한다. 각각의 그림들은 오늘날 나와 우리, 인간과 동물, 자연과의 공존 문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독자로 하여금 사색과 철학의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책을 준비하는 내내 동물과 자연물 그리기에 관심을 기울였던 화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그들의 그림 한 폭, 한 폭이 눈에 닿을 때마다 내 시선의 살, 정신의 살이 새로 돋았습니다. 책에는 동물학자, 생물학자가 보면 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적은 수의 동물이 실려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동물의 세계를 연구하고 이를 회화로 기록했던 동물학자이자 화가 또는 일러스트 작가였던 분은 극소수입니다. 미술(가)의 세계와 동물(학자)의 세계는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멀어요. 저는 이 두 세계를 이 책으로 연결해보려 했습니다. 사실 더 많이, 더 잘 연결될 수 있어요. 이 책에 소개되는 화가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몇몇은 동물화(그리고 식물화) 분야의 거장들이에요. 마리아 지빌라 메리언, 존 제임스 오듀본, 브루노 릴리에포슈, 같은 분들, 또 우스타드 만수르, 주세페 가스틸리오네(양시닝/양세녕), 화안(화암), 오히라 고손 같은 분들 말입니다. 호안 미로, 오토 딕스 같은 분들의 동물화도 소개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과외로 동물도 그렸다면 앞서 말한 분들은 동물이라는 주제에, 그들의 존재에 흠뻑 빠졌던 분들이지요.” - 저자 인터뷰 중에서



**“이 책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을 함께 이해하고 나아가자는 새로운 제안이다!”**

**동물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동물에 대해 알고 있을까?**

**무엇이 지금 나의 삶을 가능케 하며, 어떻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언뜻 보면 화집에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그림과 함께 흐르는 본문은 단순히 미술작품과 화가에 대한 일차원적 소개를 넘어 동물, 인간, 지구자연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더한층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풍성한 담론을 펼치고 있다. 이는 이 책이 일반적인 화집과는 다른 색채를 가졌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본문의 큰 구성은 집 동물, 곤충류, 영장류, 그리고 그 외 지능의 존재로 나누었고, 미술작품과 글의 레이아웃 디자인의 적재적소에 여백을 더하여 마치 미술관을 산책하는 듯이 그림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 1부. <집에 살던, 사는 동물> 반려동물의 시대에 다시 생각해보는 동물 복지  
개, 고양이, 금붕어, 낙타, 닭, 당나귀, 돼지, 말, 소, 앵무새, 양, 염소, 오리

- 2부. <아주 작은 녀석들> 동물계의 왕, 절지동물의 비밀과 자연의 질서  
개미, 거미, 게, 나방, 나비, 딱정벌레, 매미, 벌, 사마귀, 사슴벌레, 잠자리



- 3부. <지능의 존재들> 동물의 지능에 대하여  
가오리, 가자미, 개구리, 거북, 고래, 고슴도치, 곰, 공작, 기러기, 기린, 펭, 나무늘보, 날치, 늑대, 다람쥐, 달팽이, 도마뱀, 링스, 매, 메추라기, 문어, 물고기, 물총새, 바다표범, 박쥐, 백로, 뱀, 벌새, 빗해파리, 사슴, 사자, 산호, 상어, 새우, 성게, 수달, 악어, 앵무, 여우, 올빼미, 왜가리, 재규어, 제비, 조개, 지렁이, 치타, 카멜레온, 코끼리, 코뿔소, 코알라, 키위, 토끼, 투칸, 펠리컨, 펭귄, 하마, 학, 해마, 해파리, 호랑이, 홍학

- 4부. <인간이라 불리는 어느 기이한 동물과 그 선조> 인간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인간의 고유성인가?  
원숭이, 뱀, 새, 인간

각각의 부는 ‘동물 명화+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호모 사피엔스는 최소 4만 년 전부터 야생동물을 가축화했다고 한다. **1부 <집에 살던, 사는 동물>에서는** 인류가 그간 어떤 동물들을 어떤 이유로 사육해서 집과 마을에서 키워왔는지를 살펴본다. 그런데 이 ‘집 동물’이라는 주제에는 반려동물이라는 애뜻한 주제 말고도, 육식이라는 끔찍한 주제가 함께 흐르고 있다. 저자는 오리털 점퍼를 입고 소가죽 부츠를 신고서 비프스테이크를 썰며 반려견을 애지중지하는 풍경은 어딘가 묘하지 않은지 묻는다. **2부 <아주 작은 녀석들>에서는** 동물계의 왕, 절지동물(곤충류)의 비밀과 자연의 질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채로운 곤충 그림을 함께 에세이에서는 곤충이 속하는 절지동물이 어떻게 가장 번성한 생물일 수 있었는지를 심도 있게 이야기한다. 가장 많은 미술작품이 등장하는 곳이 3부이다. **3부 <지능의 존재들>에서는** 저자는 본능이라는 말은 동물과, 지능이라는 말은 인간과 연결시켜 사고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일반적이지만 매우 잘못된 것임을 밝히며, 얼핏 지능 없는 이들 같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의 실상을 살핀다. **4부 <인간이라 불리는 어느 기이한 동물과 그 선조>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인간의 고유성인지에 대해 진화인류학, 인간생물학의 관점으로 풀어내며 화

두를 던지고 있다.

저자는 인간과 동물, 자연을 공부하고 알아가고, 또 그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의 삶을 바로 서게 하는 초석이 된다고 믿는다. 이 책을 통해 동물을 알아가기를 권하는 이유다.

## 본문 중에서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라스코(Lascaux) 동굴에 남아 있는 벽화들이 입증하듯, 인간이 처음으로 그린 그림은 바로 동물화였다. 약 1만 7천~1만 5천 년 전, 고대인들은 이 동굴을 일종의 신전으로 삼고 동물들을 벽에 그리고 손도장을 찍었다. 그 동물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먹이가 되어) 구원해주기도 하는 존재, 그리고 식물과는 달리 끊임없이 먹이를 구한다는 점에서 자신들과 유사한 존재였다. 고대인들이 보기에 그 동물들, 소와 말, 사슴들은 인간과 지구자연, 삶과 죽음의 신비를 품은 존재였다. 그 동물들은 삶의 동반자였고 자연을 한 어머니로 둔 형제였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 나의 희생물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그들은 고대인에게 복합적, 다층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산목숨들에 대한 경이가, 애착감과 비애감이, 동류감과 연민이 고대인들의 피를 뜨겁게 했다. 그렇게 동물들은 벽화로 기록되었고, 목상되었다. 내가 이 책의 독자들에게서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복합적·다층적인 감정이다. 라스코 동굴에 동물 벽화를 그렸던 고대인들이 벽화의 주인공들에 대해 가졌던 바로 그 심성 말이다. 그런 심성을 회복해가는 일에 이 책의 그림과 글이 도움이 되기를. 이 책에 효용이 있다면 아마도 그런 것일 테니.”

- 본문 중에서

“동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호모사피엔스가 어떤 존재인지 말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알려는 이라면 자신의 선조를, 자기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태어난 시점까지의 역사부터 먼저 알아야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도, 호모라는 속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왜 언제부터 항시적 직립보행이 지구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도, 인류의 조상이 왜 삼립지대를 포기하고 들판으로 나왔는지도 알아야 한다. 물론, 동물이 지구에서 탄생한 역사까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38개 동물 문에 속하는 여러 동물들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다르게, 얼마나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요컨대, 이 책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관심을 둔 이라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 본문 중에서

## 작가 소개



지은이\_우석영

생명 철학·지속가능성 분야 연구자이자 자연문학 작가. 푸드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연세 대학교, 시드니 대학교 대학원,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대학원을 유랑하며 사회학, 문학, 철학(세부전공: 창조성의 존재론) 분야의 내공을 쌓았다. 그러나 물리적 시간으로도 심리적 시간으로도 학교보다는 산중에서, 도서관에서, 서재에서 홀로 연마한 독학자에 가깝다. 환경철학, 문명론, 평화학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문사회학과 과학의 융복합 글쓰기를 추구한다. 자립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한자어의 기원 연구를 철학적 사유와 접맥한 교양철학서 『날말의 우주: 말에 숨은 그림, 오늘을 되묻는 철학』, 그림으로 읽는 우리 시대, 한국 도시 인문학 『철학이 있는 도시』, 나무를 주제로 문학, 철학, 인류학, 생태학을 아우르며 펴낸 책 『수목인간: 나무의 시학, 나무의 생태학』, 『배려의 식탁』(공저), 『녹색당 선언』(공저)이 있다.

다. 옮긴 책으로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살아 있는 민주주의』 등이 있다. paixici@gmail.com woosy.org



# 차례

여는 글

## 1부. 집에 살던, 사는 동물

개 | 프란시스코 데 고야  
 개 | 나데즈다 모스티바  
 개 |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릴로  
 개 | 아실 클리센티  
 개 | 자코모 발라  
 개 | 오도 디스  
 개 |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고양이 | 작자미상  
 고양이 | 렘브란트 부가티  
 고양이 | 변상벽  
 고양이 |가와나베 교사이  
 고양이 | 화안  
 앵무새 | 칸디도 포르티나리  
 앵무새 | 프리다 칼로  
 금붕어 | 앙리 마티스  
 낙타 | 화안  
 소 | 윌리엄 워커  
 소 | 프란시스코 데 고야  
 말 | 에드윈 랜서어  
 말 |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당나귀 | 호안 미로  
 돼지 | 조지 물랜드  
 닭 | 이토 자쿠추  
 닭 | 호안 미로  
 닭 | 파블로 피카소  
 양 | 로사 보뇌르  
 양 |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염소 | 에드가 헛트  
 오리 | 브루노 릴리에포슈  
 오리 | 존 제임스 오듀본

동물 이야기 1:  
 반려동물의 시대에 다시 생각해보  
 는 동물 복지

## 2부. 아주 작은 녀석들

잠자리 | 신사임당  
 잠자리 | 치안수안

나비 | 윤빙  
 나비 | 마관  
 나방 | 빈센트 반 고흐  
 나비 | 주리안  
 거미 |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  
 개미 |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  
 메뚜기 | 자오창  
 사마귀 | 화안  
 사마귀 | 신사임당  
 벌 | 자오창  
 사슴벌레 | 알브레히트 뒤러  
 딱정벌레 | 지오반나 가르초니  
 매미 | 화안  
 게 | 주루이닝  
 동물 이야기 2:  
 동물계의 왕, 절지동물의 비밀과  
 자연의 질서

## 3부. 지능의 존재들

호랑이 | 가노 단유  
 호랑이 | 김홍도·임희지  
 호랑이 | 작자미상  
 호랑이 | 가오키페이  
 호랑이 | 앙리 루소  
 재규어 | 앙리 루소  
 링스 | 존 우드하우스 오듀본  
 치타 | 조지 스테르브스  
 사자 | 앙리 루소  
 여우 | 브루노 릴리에포슈  
 사자 | 작자미상  
 늑대 | 존 우드하우스 오듀본  
 곰 | 요한 크리스티안 다니엘 폰 슈  
 레버  
 사슴 | 장 밥티스트 우드리  
 사슴 |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토끼 | 쿠이바이  
 날치 | 존 화이트  
 상어 | 존 싱클턴 코플러  
 매 | 이암  
 매 | 루이스 아가시즈 푸에르트  
 매 | 세손 슈케이  
 올빼미 | 토머스 뷰익

지렁이 | 요리스 호프나겔  
 기러기 | 브루노 릴리에포슈  
 물총새 | 앤서니 애들러  
 공작 | 니시아마 호엔  
 공작 | 가오치핑  
 펭 | 우타가와 히로시게  
 펭 | 오히라 고손  
 백로 | 존 제임스 오듀본  
 왜가리 | 한스 슬로안  
 투칸 | 자크 바하본  
 키위 | 존 굴드  
 펠리컨 | 존 제임스 오듀본  
 홍학 | 존 제임스 오듀본  
 벌새 | 마틴 존슨 히드  
 메추라기 | 자오보주  
 제비 | 이토 소잔  
 학 |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카멜레온 | 우스타드 만수르  
 고래 | 존 카스트  
 고래 | 작자미상  
 수달 | 에드워드 크노벨  
 새우 | 치바이스  
 문어 | 조르주루이 르클레르 드 뷔퐁  
 문어 | 에른스트 헤켈  
 물고기 | 주동칭  
 조개 | 제임스 앤소르  
 달팽이 |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  
 가오리와가자미 | 요리스 호프나겔  
 물고기 | 구리모토 단슈  
 펭귄 | 헨리 스테이시 마크스  
 개구리 | 화안  
 개구리 | 찰스 바버  
 악어 |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  
 거북 | 화안  
 박쥐 | 에른스트 헤켈  
 하마 | 렘브란트 부가티  
 코끼리 | 화안  
 기린 | 플로렌트 프레보스  
 코뿔소 | 장 밥티스트 우드리  
 코알라 | 존 르윈  
 나무늘보 | 요리스 호프나겔  
 고슴도치 | 존 에드워드 그레이  
 다람쥐 | 한스 홀바인  
 성게 | 샤를 데살린 드르비니  
 해파리 | 필립 헨리 고세  
 산호 | 에른스트 헤켈

빛해파리 | 에른스트 헤켈  
 에뮤 | 존 굴드  
 바다표범 | 앨버트 비어스타트  
 뱀 | 오귀스트 듀메릴  
 도마뱀 | 샤를 데살린 드르비니  
 해마 | H. L. 토드

동물 이야기 3: 동물의 지능

## 4부. 인간이라 불리는 어느 기이한 동물과 그 선조

원숭이 | 무치  
 원숭이 | 하세가와 도하쿠  
 원숭이 | 윌터하우스 호킨스  
 원숭이 | 이토 자쿠추  
 인간 의 탄생 | 조르주루이 르클레  
 르 드 뷔퐁  
 인간, 위대함을 숭배하는 자 | 사자  
 인간  
 인간 풍경 | 히에로니무스 보슈  
 먹는 인간 | 요아힘 베케라르  
 인간 풍경 | 장 레옹 제롬  
 인간 풍경 | 프레데릭 레이턴  
 인간과 자연 | 가브리엘 폰 막스  
 인간과 자연 | 프리다 칼로  
 인간의 빛 |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인간의 빛 | 광릉사 목조반가사유상  
 인간의 빛 | 세르게이 콘스탄티노프  
 동물 이야기 4:  
 인간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인간의  
 고유성인가?

참고문헌  
 작가색인

